

사설

‘週5일 근무제’ 포교의 好機

7월부터 은행들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 이 새 제도가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될지는 일차로 노사 양측의 노력여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속에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단 노사양측의 주5일 근무제 합의는 국민에게 새로운 여가활동과 소비문화 창조 등에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더욱이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5.7%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결정된 것이어서 시행 첫 해부터 국민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주5일 근무제의 조기 정착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선 우리 불교의 역할이 지

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찰을 찾는 국민에게 그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과거처럼 사찰 방문객을 단순한 관광객 또는 소풍객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문화와 조상들의 모습을 배우고 익히는 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등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주5일 근무제 시행은 우리 불교가 수용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며 해부터 국민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주5일 근무제의 조기 정착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선 우리 불교의 역할이 지

월드컵, 우리 문화 성찰 계기로

외국에 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문화적 차이, 특히 언어 소통의 문제가 ‘개별자’로 하여금 ‘한국인’임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문화란 물고기에게서 물과 같다. 그러나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민물이나 바닷물이나에 따라 사는 고기가 달라진다.

민물과 바닷물의 차이, 문화의 차이란 그런 것이기도 하다. 아무리 이질적인 문화라 하더라도 ‘인류’라는 이름 앞에서 보편적 속성을 가지며, 자연적·역사적 차이에 따라 특수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뜨겁다. 조그마한 공 하나가 세계인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축구를 좋아하는 인류 보편의 속성이, 한국의 고유성을 세계에 펼쳐 보이고 한국인 스스로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자각케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양식 대부분이 서구화됐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서라도 ‘우리 것’에 대한 자각은 중요하다. 물론 국수적 태도의 우리 것 강조는 경계해야 하지만, 진정한 우리 다듬어와 기구고 다듬어야 할 가치를 확인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경주·대구·광주 등 10개 국립박물관의 ‘일본 미술 명품전’·〈신라의 금동불〉·〈한국 전통 복식 2000년〉·〈남도 명품전〉 등 기획전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세계인의 눈에 우리 것을 보여 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월드컵이 마련해 준 세계적 ‘명식’은 ‘보편과 특수’라는 문화의 두 가지 속성 모두를 체감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법랍 20년이상 스님 재교육

6월 12~14, 19~21일, 조계종 정례화 예정

화성 신흥사서

조계종이 법랍 20년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개최하는 등 종단 스님 재교육에 적극 나선다.

교육원(원장 무배)은 6월 12~14일과 19~21일 경기도 화성 신흥사에서 고급지도자과정 및 중진지도자과정 연수를 각각 개최한다.

이번 두 차례의 연수회는 지도자급 스님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종단차원의 첫 연수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 두 연수회는 지난 4월 열렸던 수련회 사찰 소임자 연수

와 6월말~7월로 예정돼 있는 관료사찰 주지연수 등 종단이 처음 실시하는 연수와 함께 본말사주지연수와 전법인력양성교육, 전산교육 등을 포함한 조계종단의 스님 재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랍 20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1회 고급 지도자과정 연수’는 교육원장 무배스님의 ‘불교 지도자의 사명과 자세’ 특강을 시작으로 불교지도자론·환경 및 생태활동·경영혁신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로 진행된다.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1회 중진 지도자과정 연수’는 법랍 25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프로그램은 고급 지도자과정 연수와 같다. 연수를 이수한 스님 중 현직 사찰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본말사주지연수 의무사항이 면제되며, 각종 교역직 종무원 및 교계단체 관리자에 취임하였을 때 관리기능에 필요한 지원도 받게 된다.

교육원은 교육의 질을 위해 이번 연수회의 인원을 40명 내외로 제한하는 한편, 올해 연수를 받지 못하는 스님들을 위해 연수회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mwu@buddhania.com

외국인들이 사찰에 머물며 한국불교 체험을 하는 템플스테이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사업단(단장 도영스님)이 템플스테이 참가자 안내서(영문판) 1만부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사업단은 월드컵 기간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홍보를

템플스테이 적극 홍보나서

영문판안내서 1만·리플렛 30만부 배포

강화하기 위해 리플렛 30만부와 4종의 참가자 안내서 및 운영자 지침서를 제작, 24일부터 배포에 들어갔다.

한국전통문화와 한국불교에 대한 종단차원의 대대적 번역사업의 결과물로 평가되는 이 안내 책자들은 외국 주재 20여 한국관광공사 지사와 각국 대사



**각계인사 1만명 북한산 살리기 선언**

“정부는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보림산 관동도로 건설을 백지화하고, 민간관동기구를 마련해 우회노선을 수립하라”

22일 종로성당에서 열린 ‘북한산 살리기 1만인’ 선언식에 참석한 각계인사 200여명은 “도로건설 등 교통정책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가운데 일면스님(북한산 관동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종교연대 공동대표)과 왼쪽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사찰수련 정보센터 상설 운영

주5일근무 본격화대비, 프로그램 개발·홍보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스님)이 수련 정보센터를 상설화하는 등 사찰 수행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나섰다.

포교원은 오는 7월부터 은행권 이 주5일 근무제를 전격 실시하기로 하는 등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사회, 문화적인 환경 및 생활변화에 발맞춰 사찰 수련법회를 실행종도 조성 및 대중 포교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아래, 6

월 12일부터 사찰 수련법회 정보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6월 5일까지 각 사찰로부터 수련법회 운영 기획서 등을 접수받는 한편, 온라인 수련법회 정보센터(www.pogyo.org) 상설화 및 온라인 상담, 수련법회 프로그램 연구 및 보급, 수련법회 안내 자료집 및 리플렛(1만부) 제작 등에 나서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igum@buddhania.com

우리 겨레가 화합과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기위해 국운운성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또 “2천만 불자 모두가 화해와 협력을 선도하여 인류 화합의 대축제를 완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나도 대표선수’라는 주인된 참여의식이 필요하고 민족 전통문화의 계승자로서 오천년의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고 문화민족으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심으로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kw@buddhania.com

**‘현대’ 만평** 김영민

경주 남산에도 관심을...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디피어' www.buddhania.com

불교소셜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경우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와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 등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선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금주산 금용사 관세음보살님 화현 32주년 기념 정진 법회**

귀의 삼보하옵나니.

포천 금주산 금용사가 22년간 법정토지 분쟁으로 인하여 부처님의 도량으로서 역할도 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찾아오시는 여러 불자들이 그 동안 누를 끼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법정분쟁으로 인하여 기도드리러 오셨다 그냥 가신 불자들에게 거듭 사과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행히 부처님 가피력으로 법정토지분쟁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 다. 이제 사부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도량으로 거듭나고자 32년 전 관세음보살님께서 화현하신 금주산 금용사에서 특별 정진 기도 법회를 동행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류의 가난, 병고, 전쟁을 소멸하기 위한 기도정진을 할 예정이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무루 동참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시 : 2546년(2002년) 6월 9일(음 4월 29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경기도 포천 금용사

▶문의 : 031-533-4405, 4425

▶주소 :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25-8 금용사

관세음보살님 화현 바위

관세음보살님 화현 바위

1970년 칠석 다음날인 음력 7월 8일이었다. 칠석기도 이후 당시 100원기도를 하고 있었던 8명의 불자들이 주지스님은 뜻밖의 광경에 눈을 뜨고 벽면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저녁 9시 - 9시 30분 동안 금용사 법전에 관세음보살님이 남승주에게서 화현 하신것이었다. 저미로운 미소를 띠며 바라보는 관세음보살님께 한없이 전을 한지 30분, 서서히 극락사망으로 떠나시는느니 소리없이 가셨다 이후 금용사에서는 해마다 7월8일 관음기도제일로 정해 당시 친견하신 불자들이 비뿔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정진기도를 올리고 있다.

관선

관세음보살님 화현 바위